

행복한 금요 편지

漢字語의 由來를 밝히자

김경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¹⁾


오늘 미지의 청년들에게 편지를 띄우며 평소 생각하던 우리의 言語 문제에 대한 意見을 피력하려 한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命運을 가름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애국 청년 여러분에게 호소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漢字 文化圈의 중심국가로서 전 국민이 언어생활에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들어 한자어를 한글로 쓰면서 한자어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다. 또 언어정책마저 한글 전용으로 흐르면서 한자어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듯하다.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면서 한글전용이라고 우기는 것은 이웃이 알까 창피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에 쓰이고 있는 기초적인 한자와 한자 어휘의 유래를 밝힌 研究成果도 극히 저조하다. 그 때문에 여러 국어사전들에 수록된 어휘의 70%가 한자 또는 한자어(韓字語)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들의 어원이 어디인지 어떤 뜻인지 그 由來가 어떠한지 언제부터 사용해 왔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 수많은 한문학자가 많은 연구업적을 이루었고, 현재도 한자, 한문에 대한 전문 연구자가 적지 않지만 연구자들 대부분이 어휘의 유래에 대한 연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國家 政策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듯하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회 간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文字 政策을 위해서도 진작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관심의 대상이긴 하되 이를 해결할 아이디어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전적(典籍)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고려조에서부터 개화기까지 수많은 개인 문집들이 있다. 이 전적을 하나하나 검토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이다. 가령 시조(始祖)라는 단어는 1145년에 나온 삼국사기 본기의 첫줄에 기록되어 있다. 거서간(居西干)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단시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작업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대상과 범위가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애국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다. 언어 속에 國家의 正體性和 나라의 主體性이 녹아 있다. 이는 인문학 기초 연구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글이란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의 번역 작업에 집중해 왔다. 그것은 원전을 바탕으로 하는 人文學 研究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와 같은 원문 번역이나 해석은 원전의 문자가 우선해야 한다. 문자 하나하나의 건축의 재료다. 재료를 무시한 건축물은 상상할 수 없다.

글자 연구에 관해 누구나 공인하는 기존의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인식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자는 사회, 문화의 특정한 역사적 여건 하에서 형성되고, 도입되고, 폐기도 되는 것이다. 또 사용되는 시대의 여건이 바뀌면 문자의 의미와 용법도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말 속의 漢字와 漢文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초적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고인 고문헌에 기록된 개개의 한자와 그 문자들의 유래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거듭 부언하거니와 나라의 주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특히 未來의 韓國을 책임질 靑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나카소네가 동경대를 졸업한 20대 초에 문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문까지 낸 것은 언어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